## Sermon: Why KJB?: My Journey to the Word of Truth.

#### ■ 오늘의 본문말씀: 베드로후서 1:19

Today's main verse is 2 Peter 1:19.

<sup>™</sup>2 Peter 1:19 <sup>™</sup>19 We have also a more sure word of prophecy; whereunto ye do well that ye take heed, as unto a light that shineth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 and the day star arise in your hearts

『베드로후서 1:19』 19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 1 Introduction

As you know, this Incheon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was founded at my apartment around 7 years ago. 아시다시피, 인천국제침례교회는 약 7년 전 제 아파트에서 설립되어 시작되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reason or purpose why IIBC was founded in Incheon, even though there were many local churches here in Incheon, was to worship God in spirit and in truth. IIBC가 인천에서 설립되 가장 중요한 이유나 목적은, 인천에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Let's read John 4:24. 요한복음 4:24절을 보겠습니다.

<sup> $\Gamma$ </sup>John 4:24 $_{\perp}$  <sup>2</sup>4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요한복음 4:24』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Please remark the last word in John 4:24. 요한복음 4:24절의 마지막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That word is 'truth.'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By the way, what is the truth? 그런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let's go to John 14:6. 요한복음 14:6절로 가보겠습니다.

『John 14:6』 <sup>6</sup> Jesus saith un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요한복음 14:6』 <sup>6</sup>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So, the truth is Jesus Christ.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그리스도입니다.

And the Scripture also says that Jesus Christ is the Word. 성경기록도 예수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Let's read John 1:1-4 and 14. 요한복음 1:1-4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text{$\ }}$ John 1:1-4 $_{\text{$\ $\ $}}$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2}$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3}$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as made.  $^{4}$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요한복음 1:1-4』 <sup>1</sup>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sup>2</sup> 바로 그분 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sup>3</sup>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sup>4</sup>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text{$\sc F}}$  John 1:14 $_{\text{$\sc I}}$   $^{1}$ 4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요한복음 1:14』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s such, Jesus Christ is the Word per se!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수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So the exact meaning of worshipping in truth is to worship God in the Word that is the Bible. 그래서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의 정확한 뜻은 성경에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By the way, there have been so many Bible versions so far.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성경번역본들이 발간되어 왔습니다.

I don't think that every version of the Bible is perfect word of God. 저는 모든 성경번역본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 do believe that KJB is the Final Authority even in the 21st century. 저는 킹제임스성경이 21세기에도 최종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In other words, the King James or Authorized Version is believed to be totally infallible and inerrant and hence supremely authoritative in all matters of faith and practice. 다시 말하면, 킹제임스역 혹은 권위역이 전적으로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다고 믿어지며, 그래서 모든 믿음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So IIBC was founded to worship God best by using KJB. 그래서 IIBC는 킹제임스성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최고고 경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But don't get me wrong. 하지만 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 don't say that local churches which do not use KJB do not belong to the body of Christ. 저는 KJB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Looking back to the past 7 years from the foundation of IIBC, I don't think I have had an opportunity to tell officially the reason why I do believe that KJB is the final authority, or why KJB is used at IIBC. 7 년 전 IIBC 설립 당시를 돌아보면, 저는 왜 킹제임스성경이 최종 권위이며, 왜 IIBC에서 사용되는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Now I will therefore speak to you the message entitled "Why KJB?: My Journey to the Word of Truth" by giving you my testimony.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간증을 드림으로써 "왜 킹제임스성경인가?: 진리의 말씀을 향한 나의 인생행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a wonderful place to worship you in spite of the terribly hot weather this morning. Now I pray that you help us to find the real Word of Truth through this testimony, and that we may live a Christian life acceptable unto you by your Word of Truth. In Jesus' name I pray. Amen.

# 2 Family Background 가족 배경 이야기

I was born and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Whenever I tell about my Christian background, I can't help mentioning Dr. 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 who was one of the early Presbyterian missionaries to Korea, arriving here in 1890. 저의 기독교 배경에 대해 말하자면, 1890년에 한국에 온 초기 장로교 선교사 중의 한 분이 사무엘 오스틴 모페트 박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Dr. Moffett led my paternal great-grandfather (고조부) and my maternal grandfather (외조부) to Christ when he was ministering at Pyongyang which is currently the capital city of North Korea. 모페트 박사는 지금의 북한의 수도가 된 평양에서 선교활동을 할 때 저의 고조부와 외조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셨습니다.

I really thank God for sending Dr. Moffett to Korea to save my ancestors and also to spread the Gospel even to me. 저는 모페트 박사님을 한국에 보내셔서 저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에게 까지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y paternal great-grandfather was such a strong and mighty man that he could obtain the best prizes at Korean traditional wrestling games. (씨름대회) 저의 고조부님은 아주 힘이 센 강한 남자여서 한국 전통씨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After he got saved, he became an evangelist to deliver the Gospel. 구원을 받은 후, 고조부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He carried individual books of the Gospels (쪽복음 책들) on donkeys and went around all over the country and preached the gospel to people. 그분은 쪽복음 책들을 나귀에 실고 온 지방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Historically an evangelist like him at that time was called as Mae-Suh-In (賣書人) which means a person who sells books.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그분 같은 전도사를 매서인이라 불렀는데, 이는 책을 파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In this picture the first person from the left side is a Mae-Suh-In like my paternal great-grandfather. 보 시는 그림에서 왼쪽에서 첫 번째 사람이 제 고조부 같은 매서인입니다.

He was carrying a box which might contain some individual books of the Gospels (쪽복음 책들), and delivering them to people. 그분은 쪽복음 책들을 담을 수 있는 함을 들고 다시시며 사람들에게 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This slide shows the New Testament Bible which was published in 1858. 이 슬라이드는 1858년에 발간된 신약성서를 보여줍니다.

Inside you can see the chapter 1 of John. 가운데 요한복음 1장을 볼 수 있습니다.

However, it does not seem to be easy for modern Koreans to read these pages because of many archaic words. 하지만, 현대 한국인들은 고어가 많이 들어 있어 이 페이지를 읽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his slide is a monumental film in Korean church history. 이 슬라이드는 한국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필름입니다.

This is a photograph of the church board of Pyongyang Sanjeonghyeon Church (평양 산정현 교회 제직회) on January first 1937. 이것은 1937년 1월 찍은 평양 산정현 교회 제직회의 사진입니다.

The fourth man from the left side of the front row was Pastor Kee-cheol Joo (주기철 목사) who was martyred in jail due to horrible tortures by Japanese police. 앞줄 왼쪽에서 4번째 남자는 일본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The fourth man from the right side of the front row was my maternal grandfather, Elder Kye-Joon Ryu. (유계준 장로) 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 남자가 제 외조부, 유계준 장로이십니다.

He was a treasurer of Sanjeonghyeon Church and took care of all family members of Pastor Joo while he was in jail. 그분은 산정현 교회 재정담당으로 감옥에 계신 주목사님의 온 가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Elder Ryu, my maternal grandfather, was also martyred due to the execution by communist party just before Korean war. 제 외조부 유장로님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공산당에 의해 처형당하여 순교하셨습니다.

It's because he rejected the offer from communist party to use the church as an office for the communists. 그 이유는 그분께서 교회를 공산당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공산당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s mentioned above, needless to say, my father and my mother were raised in Christian families, respectively. 위에 언급한 것 처럼, 말할 것도 없이, 제 아버지와 어머니도 각각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So was I.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However, I don't know the exact time when I got saved. 하지만, 저는 정확히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I just assume that I received Jesus Christ as my personal Saviour and Lord before I entered the middle school.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예수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았들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Until the age of thirteen years, I did not have any particular problems to live a Christian life. 열세살이 될 때까지. 저는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In other words, it was in my middle school when I encountered the first big attack against my Christian belief. 다른 말로 하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저의 기독교 믿음에 대한 첫 번째 큰 공격에 직면하였습니다.

### 3 Evolution 진화론

I became so confused spiritually after I began to learn evolution in middle school. 저는 중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한 후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I had to study hard to enter the best high school.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The harder I studied the science, the more confused I was spiritually.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록, 저는 영적으로 더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The Bible always declares creation. 성경은 언제나 창조를 선언합니다.

But my science teachers asserted that evolution is true. 그러나 제 과학 선생님들은 진화가 맞다고 주장하

였습니다.

As you see in this picture, they said that all different kinds of animals are originated from protists.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처럼, 그들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원생생물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Especially they taught that men are evolved from chimpanzees. 특별히 그들은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진화했다고 가르쳤습니다.

Meanwhile, when I was in premedical school, in order to harmonize evolutionary thought with belief in God, I suggested that God directed evolutionary process. 한편, 제가 의과대학 예과에 있었을 때, 진화론적 사고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조화를 위해, 저는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인도하셨다고 제안했습니다.

At that time I was very satisfied with my idea because biblical teachings about creation and scientific theories of evolution need not contradict each other. 그 때는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진화라는 과학적 이론이 서로 상충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아이디어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About a decade thereafter, I came to know that my idea had been already called as theistic evolution or evolutionary creationism by professionalists. 십년 쯤 후, 저는 제 생각이 이미 유신론적 진화론, 전문가들에는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 불려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d also I got to realize that biblical teachings about God can never be compatible with modern scientific understanding about biological evolution.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생물학적 진화론이라는 현대 과학적 사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In other words, I got to realize that evolution is the greatest lie ever told as I studied the evolutionism in detail. 다시 말해, 저는 진화론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진화론이야말로 인간이 꾸며낸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So I dare to say that Genesis 1:1 is the most important verse in the Scripture.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Now I would like to ask you to recite Genesis 1:1 together. 창세기 1장 1장을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sup> $\mathbb{F}$ </sup>Genesis 1:1 $\mathbb{I}$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창세기 1:1』 <sup>1</sup>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There have been so many articles and books that helped me to realize that the Bible is true and the book of Genesis is not myth but real history. 성경이 진리이며 창세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진짜 역사라는 것을 제가 깨닫도록 도와 준 많은 글들과 책들이 있었습니다.

One of them is an epic novel entitled "After the Flood" (홍수이후) written by Elder Sung-Ill Kim. (김성일 장로) 그 중의 하나가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홍수이후" 라는 제목의 대하소설입니다.

I was so much moved by this amazing biblical novel that I bought lots of copies of this book to give my acquaintances. 저는 이 놀라운 성경소설에 감동받아서 이 책을 많이 사서 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Another book that helped me to realize that the Bible is true and the book of Genesis is the real history of mankind is "the discovery of Genesis" written by C. H. Kang and Ethel R. Nelson. 성경이 진리이며 창세기가 인류의 진짜 역사임을 깨닫게 도와 준 또 다른 책은 C.H. 강과 에델 넬슨이 쓴 "창세기의 발견" 입니다.

The subtitle of this book is "How the truths of Genesis were found hidden in the Chinese language." 이 책의 부제는 "중국 말에 숨겨진 창세기의 진리들이 어떻게 발견되었는가"입니다.

To save time, I will mention only one case in this amazing and wonderful book. 시간 관계상, 이 놀라운 책의 한 군데만 언급하겠습니다.

The ark, a tremendous vessel – 450 feet long, 75 feet broad, and 45 feet high, (Genesis 6:15), such as no man had ever seen before, was to become a refuge during the terrible storm. 방주, 놀라운 배 – 길이가 137미터, 높이가 13.7미터 (창세기 6:15), 인간이 이전에 본 적이 없던 배가 혹독한 폭풍우 가운데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The Chinese character for boat 船 gives this very representation. 배를 뜻하는 한자, 선은 이것을 잘 나타 내고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elements pictured: a vessel 舟, eight 八, and mouth 口, meaning "people." 이 글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배를 나타내는 주, 여덟 팔,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입 구입니다.

The word for boat, then, tells the story of this first great ark which, in spite of the years of warning and pleading by Noah to his compatriots, had just eight passengers. 배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이 최초의 거대한 방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동포를에게 경고와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덟

승객만을 태운 이야기입니다.

Let's read Genesis 7:7. 창세기 7:7절을 보겠습니다.

<sup>©</sup>Genesis 7:7<sub>3</sub> <sup>7</sup> And Noah went in, and his sons (Japheth, Shem, and Ham), and his wife, and his sons' wives with him, into the ark, because of the waters of the flood.

『창세기 7:7』  $^7$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As such, total number of the passengers in Noah's ark was only eight. 이처럼, 노아의 방주에 탄 승객의 총 수는 여덟 명 밖에 안 됩니다.

This means that the Bible is true! 이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 4 Roman Catholic Church 로마 카톨릭 교회

One of the impediments that made me blind spiritually, was the Roman Catholic Church. 저를 영적으로 눈멀게 했던 방해물 중의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My house was located in "Sacred Heart Convent" (성심수녀원) until I was six years old, 제가 여섯 살이 될 때 까지, 저의 집은 성심수녀원에 있었습니다.

because my mother had worked as a faculty member at Department of Pediatrics, Saint Mary Hospital (성모병원) in Seoul. 저의 어머니께서 서울 성모병원 소아과 교수로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So the good memories of hanging out with priests and nuns made me feel like Catholic Church is one of the New Testament churches. 그래서 사제들, 수녀들과 함께 놀았던 좋은 기억들은 저를 카톨릭 교회가 마치신약교회들 중의 하나인 것처럼 느끼게 하였습니다.

However, It was in my early thirties when I perceived the true identity of Roman Catholic Church by reading Dr. Alberto Rivera's books. 하지만, 삼십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저는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의 책들을 읽고 로마 카톨릭교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This slide shows the cover and one of the inner pages of his testimony book published by Chick publication. 이 슬라이드는 칙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 표지와 그의 간증을 담은 안 쪽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It shocked me very much. 그것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I could not sleep for a few days after reading his books. 그의 책들을 읽고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Thereafter I began to study the real history of New Testament churches. 그 이후 저는 신약교회들의 진짜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Then, I agreed with Dr. Rivera's claim that the Jesuit order was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of communism, Islam, and Nazism, and causing the World Wars, the Jonestown Massacre, and the assassinations of Abraham Lincoln and John F. Kennedy (a Catholic). 그리고 나서, 저는 리베라 박사의 주장 – 예수회의 지시가 공산주의, 이슬람, 나찌주의의 창설, 세계대전의 발발, 존스타운 대학살,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과 존 F 케네디 (카톨릭 신자)의 암살에 책임이 있다는 –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And also I came to know that the Catholic Church wants to spread homosexuality and abortion notwithstanding the church's stated opposition to homosexual acts and abortion, that the Charismatic Movement is somehow a "front" for the Catholic Church. 또한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면서 동성애와 낙태를 퍼뜨리려 하고 있으며, 카리스마 운동이 카톨릭 교회의 전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Further I realized that the Popes are antichrists, and that the Catholic Church is the Whore of Babylon. 더 나아가, 저는 교황들은 적그리스도들이며, 카톨릭 교회는 바빌론의 창녀임을 깨달았습니다.

So I want to quote one sentence from Dr. Martin Lloyd Jones' sermon entitled 'THE ROMAN CATHOLIC CHURCH' published in The Westminster Record, in May 1963. 그래서 저는 1963년 5월 웨스트민스터에서 발간된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제목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 나온 한 문장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I would not hesitate to assert that this system, known as Roman Catholicism, is the devil's greatest masterpiece!" "저는 로마 카톨릭주의로 알려진 이 시스템이 마귀의 거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거리낌 없이 주장합니다."

This slide shows that Roman Catholic Church really hates King James Bible according to Dr. Rivera's

testimony. 이 슬라이드는 리베라 박사의 간증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교회가 정말로 킹제임스성경을 미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However, I did not notice at that time that KJB is the totally preserved Word of God. 하지만, 저는 그때에는 킹제임스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 5 Bible Issue 성경 문제

It was a couple of years thereafter when I came to know that God has given us KJB as the perfect Word of Truth.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진리의 말씀으로 킹제임스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One Saturday afternoon at a Christian book store I found a book entitled "Evidence 1: Why is KJB different from other versions?" 어느 토요일 오후 기독교 서점에서 저는 "증거 1: 왜 킹제임스성경은 다른 역본들과 다른가?"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After I bought this book and went home, I could not stop reading it that weekend. 이 책을 사서 집에 온 후, 저는 그 주말 동안 책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Soon I was fully convinced and assured that KJB is the perfect Word of Truth! 곧 저는 킹제임스성경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Praise the Lord for that! 그 점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Thereafter I began to read numerous books about KJB. 그 이후 저는 킹제임스성경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I bought lots of books and gave them to my acquaintances to deliver the truth about the Bible. 동시에, 저는 성경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책들을 사서 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Now I'd like to mention one of Bible verses that made me Bible believer. 이제 저는 저를 성경신자로 만들 성경구절 중에서 한 구절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Let's read Acts 8:37. 사도행전 8:37절을 읽겠습니다.

<sup>©</sup> Acts 8:37 <sup>©</sup> 37 And Philip said, If thou believest with all thine heart, thou mayest.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사도행전 8:37』  $^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By the way, this verse is omitted in other Bible versions except KJB. 그런데, 이 구절은 킹제임스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역본에는 빠져있습니다.

This verse came out just before Philip baptized a man of Ethiopia, an eunuch of great authority under Candace queen of the Ethiopians. (Acts 8:27, 38) 이 구절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기 바로 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27, 38)

As you know, baptism does not save anyone. 아시는 것처럼, 침례는 누구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It is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AFTER salvation. (1 Peter 3:21) 그것은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베드로전서 3:21)

Unless Acts 8:37 is omitted in all Bible versions, infant baptism which is unbiblical, could not be done in Roman Catholic Church. 모든 성경역본에서 사도행전 8:37절이 빠지지 않고는, 비성경적인 유아세례가 로마카톨릭 교회에서 행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So KJB is the watchtower or the keeper of the truth. 그래서 킹제임스성경은 진리의 파수꾼이자 수호자입니다.

After I became a Bible believer, I really enjoyed reading the Bible, and even participated in the committee of KJB translation. 성경신자가 된 후, 저는 정말 성경 읽기가 좋았고, 킹제임스성경 번역위원회에 참가하기까지 했습니다.

Meanwhile, I was so embarrassed when I read Matthew 12:40 in English KJB. 한편, 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마태복음 12:40절을 읽을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Matthew 12:40 is as follows: 마태복음 12:4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circ}$}}$  Matthew 12:40 $_{\text{$^{\circ}$}}$  For as Jonas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whale's belly; so sha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마태복음 12:40』  $^40$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Until that time I had known that Jesus died on Friday and resurrected on Sunday. 그 때 까지 저는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However, KJB clearly shows Jesus was buried three days and three nights. 하지만, 킹제임스성경은 예수 님께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묻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That means that the duration of his burial must be 72 hours. 그것은 그분께서 묻힌 시간이 72시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After short period of time I found the answer in the book entitled "Difficulties in the Bible" written by R. A Torrey.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R.A 토리가 쓴 "성경에서 어려운 것들"이라는 책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The point is that Jesus was buried at 6 PM on Wednesday and resurrected at 6 PM on Saturday. 요점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저녁 6시에 묻히셨다가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I hope that I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preach on it next Easter Sunday. 다음 번 부활절 일요일에 이에 대해 설교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Then, I continued to read the Bible, praising the Lord more and more.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주님을 더욱 더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Meanwhile, I found that 2 Kings 8:26 and 2 Chronicles 22:2 are contradictory each other. 한편, 저는 열왕 기하 8:26절과 역대기하 22:2절이 서로 상충됨을 발견하였습니다.

Let's read 2 Kings 8:26 and 2 Chronicles 22:2. 열왕기하 8:26절과 역대기하 22:2절을 읽겠습니다.

<sup>©</sup>2 Kings 8:26<sub>2</sub> <sup>2</sup>6 Two and twenty years old was Ahaziah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one year in Jerusalem. And his mother's name was Athaliah, the daughter of Omri king of Israel.

『열왕기하 8:26』 $^26$  아하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이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딸 아달랴더라.

<sup>©</sup>2 Chronicles 22:2<sub>3</sub> <sup>2</sup> Forty and two years old was Ahaziah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one year in Jerusalem. His mother's name also was Athaliah the daughter of Omri.

『역대기하 22:2』  $^2$  아하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사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오므리의 딸 아달랴더라.

The age of King Ahaziah when he began to reign, is mentioned in these two verses. 아하시야 왕이 통치를 시작한 나이가 이 두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However, they are totally different: 그런데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Twenty two in 2 Kings and forty two in 2 Chronicles, respectively. 열왕기하에는 이십이 세이고 역대기하에는 사십이 세입니다.

Initially I thought that one of two verses must be wrong, or ages in two verses should be same. 처음에 저는 이 두 구절 중의 하나가 틀리던지 아니면 이 두 구절의 나이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y the way, the ages of King Ahaziah in these two verses are same in NIV.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이 두 구절의 아하시야 왕의 나이가 같습니다.

I almost died after I found this contradiction in KJB. 저는 킹제임스성경에서 이런 모순을 발견하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Then, I asked as many people as I could to solve this problem. 그 때,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However, I could not obtain any answer which seemed to be logical or plausible. 하지만, 저는 논리적이거나 그럴 듯한 대답을 없지 못했습니다.

A few months thereafter, I happened to hear that the seminar for Korean pastors will be held at Calvary Chapel, Costa Mesa, LA in USA.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우연히 한국인 목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미국 LA 코스타 메사에 있는 갈보리 채플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Without hesitation I participated in the seminar, 주저없이 저는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because I expected that Pastor Chuck Smith who founded Calvary Chapel and was one of the best expository preachers over the world at that time, would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왜냐하면 갈보리 채플을 설립하셨고 당시 세계 최고의 강해설교자 중의 한 분이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However, his answer, for which I paid much money and time, was just reasonable in perspective of a theologian. 하지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건만, 그의 대답은 단지 신학자의 견지해서 그냥 적당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It did not satisfy me. 그 대답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After I came back to Korea, it happened that one of my best friends in the Lord gave me a copy of book entitled "the book of Bible problems." 한국에 돌아 온 후, 저의 주님 안의 최고 형제 중의 한 분이 "성경 문제들에 대한 책" 이라는 제목의 책을 제게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It was written by Dr. Gerardus D. Bouw who is also an astronomer. 그것은 천문학자이기도 한 게라더스 바우 박사가 쓴 책이었습니다.

It has a very plausible answer about the age of Ahaziah. 거기에는 아하시야의 나이에 대한 아주 그럴 듯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The point is that there were two different King Ahaziahs with the same name historically. 요점은 역사적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두 아하시야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fter praising the Lord with all my heart, I sent a letter to Pastor Smith to share the Biblical truth about the age of King Ahaziah. 마음 속으로 하나님 찬양을 외친 후, 저는 스미스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 아하시야 왕의 나이에 대한 성경적 진실을 나누었습니다.

A couple of weeks thereafter I received a reply via airmail from him as follows. 몇 주 후, 저는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을 항공우편으로 받았습니다.

"Dear Dr. Hann, I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the article that you sent to me. 차박사님, 제게 보내주신 글에 대해 정말 감사 드립니다.

I do believe that it is the best explanation that I have read on the concern you had regarding a possible age discrepancy of King Ahaziah during his reign. 아하시야 왕의 나이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당신의 염려 관련하여 이것이 제가 읽었던 최고의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will file this and use it in the future when questions arise on the subject.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관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시 사용하겠습니다.

May the Lord continue to bless you and to guide you. In His love, Pastor Chuck 주님께서 계속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척 목사"

Since then, I have believed that the King James Bible is totally infallible and inerrant and hence supremely authoritative in all matters of faith and practice. 그 이후로 저는 킹제임스성경이 완전히 오류가 없고 틀림이없는 그래서 모든 믿음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믿어 왔습니다.

Because of this belief, I have been boldly and joyfully able to write Biblical articles and books based on KJB. 이 믿음으로 인해, 저는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한 성경 글과 책들을 담대하고 기쁘게 쓸 수 있었습니다.

## 6 Conclusion 결론

Now I will conclude my testimony sermon this morning. 이제 오늘 아침 저의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We have the perfect Word of Truth, which God preserved by Himself. (Psalm 12) 우리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존하셨습니다.

Therefore, we should take heed unto the Word of Truth according to 2 Peter 1:19.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후서 1:19절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 will close by reading 2 Peter 1:19. 베드로후서 1: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text{c}}$ 2 Peter 1:19 $_{\text{d}}$   $^{\text{l}}$ 9 We have also a more sure word of prophecy; whereunto ye do well that ye take heed, as unto a light that shineth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 and the day star arise in your hearts

『베드로후서 1:19』 <sup>1</sup>9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 \*\*\* Let's pray: \*\*\*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I earnestly pray to you God that you always help us to take heed unto the Word of Truth. And also help us to hear from you saying "Well done, thou good and faithful servant." In Jesus' name I pray. Amen.